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한상완 위원장, 병영도서관 도서 기증

한상완 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수) 경기도에 소재한 제20기계화보병사단 내 병영도서관에 교양도서 300책을 기증하였다. 이번 도서기증은 병사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향상은 물론 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홍보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 개최

2007년 12월 21일(금), 김찬석(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소영(INNO PR 대표), 홍순언(타깃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위원회 및 기획단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을 증진 및 위원회·기획단의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책자·영상물 및 언론을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도개선소위원회 개최(3차)

2007년 12월 24일(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 정독도서관, 한성대학교 도서관 등 전국 5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007년 10~11월에 실시한 도서관 운영평가연구 시범사업 결과보고와 2008 도서관 운영평가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출판계 간담회(3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7년 12월 26일(수) 문화관광부 최종철(저작권정책팀), 김원우(출판산업팀),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부장)와 출판계 대표로 김성룡(교보문고 전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디지털저작물의 납본 이용 및 접근문제, 현실에 맞는 전자책의 납본 보상금 지급, 디지털저작물의 관외서비스 허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출판계 등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K-TV 생방송 인터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이선(정책조정팀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이선(정책조정팀, 팀장)은 1월 16일(수) K-TV 「생방송, 아하! 그렇군요」 '생생정책 2323 코너'에 출연하여 "공공도서관, 고객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주제로 인터뷰하였다. 이 코너에서 이선 팀장은 2007년 12월, 공공도서관에 배포한 '공공도서관 표준운영 업무절차'와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영화상영 및 교양강좌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메카로써 자리매김하는 도서관들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기사제공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협회소식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명칭 변경

우리협회에서도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명칭변경과 관련, 사무총장의 방송인터뷰(2007년 12월 14일(금) KBS 1 TV 뉴스광장 2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협회 및 산하협의회 명의의 공동서신을 발송하는 등 명칭

변경을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2007년 12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교육청이 신설 도립도서관의 명칭을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하겠다며 제출한 조례안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꿔 수정의결하였다.

[다음은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및 협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보낸 서신이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45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권익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협회는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 조례안 중 “수원평생교육학습관신설”(의안번호 354)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설치코자 하는 건물(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 소재)은 본래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입법 예고(2007.9.11)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장서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도서관 시설 확충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350억원 예산규모로 도서관 전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 도서관건립 건축설계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06년 3월 공사에 착공, 2007년 9월 13,472㎡(4,075.34평)의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완공, 2008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으로서 최초로 지하에 1백만권 규모의 자료를 소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를 두는 등 모든 시설과 공간계획이 도서관 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란 건물의 설계과정에서부터 다를 것이고, 예산투자규모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명하고 일부시설을 공공도서

관 기능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 내용상 사용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투자의 비적절성 등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이 건물은 도서관법 개정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될 지역대표공공도서관 중 경기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 학습관으로 명명된다면 이 부분은 무산될 것입니다.

도의원님,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공공도서관 부문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어서 중앙정부에서는 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는 등 매우 혁신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도서관발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될 건물이 당초 건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 협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건의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이 평생교육 증진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정보, 문화 및 교육 공간인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역에서 도서관 발전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도서관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불이익이 모두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연말에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경기도의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이 건물이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사)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승(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장	고화석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정문영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이영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이순옥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장	전희준	(사)공공도서관협의회장	권경상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박명진	(사)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장	최호남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장	김재국	(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	서정욱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이정숙		

전문위원회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 2007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14:00~16: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김광진(위원장), 변태현, 양덕수, 오세훈, 이 상, 정분희, 조왕근(이상 위원), 이현주, 김태경(이상 사무국)
- 회의안건 : 1)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2) 기타
- 회의 내용
 - 1)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집행기구는 아님.
 - 향후 운영 및 사업계획 논의에 앞서 우리 협회에서 행해진 대북 관련사업 보고
 - 2001년 남북도서관협력특별위원회의 연구프로젝트 : 한국도서관협회 남북도서관협력특별위원회,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방안 :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 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관련 대북접촉
 - 2000년 제86회 일본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2000년 8월 25일)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및 관계자 북한 방문(2005년 11월 30일~12월 3일)
 - 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사업에 관한 논의
 - 김광진 위원장 :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먼저 본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함 실제로 추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한다. 계획수립 이전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남북간의 교류에 대한 절차문제와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교류내용 : 인적교류와 학술교류(타분야 학술교류지원 포함), 물적 교류
- 교류방법 : 직접교류, 외국의 지원기관을 통한 교류 등
- 우리협회의 대북교류시 경로와 방법에 관한 절차와 서류 등 사전준비 필요
- 변태현 위원 : 도서관계의 학술 교류와 협력의 측면에서, 상호대차, 학위논문, 책보내기 등 대학과 같이 자체적인 학술교류능력을 가진 기관에서 자료를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오세훈 위원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자. 또한 Road map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자. 즉, '만나자 → 무엇을 돕고 지원할 지를 결정 → 지원방안 → 자료교류와 인적교류 등' 단계별 사업을 통해, 위원회 임기 동안 교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양덕수 위원 : 국민적 기반조성의 필요성과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개방이 필요함.
- 조왕근 위원 :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대북교류에 있어서는 현물이 가야 교류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만나자"는 제안보다는 실제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가 교류에 유리하며, 책보내기 사업 등도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사전에 목록을 보내어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사업 예산의 확보문제
 - 도서관대회 등에 북한의 대표단을 초청하거나, 기타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가 우리협회 상설위원회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협회의 자체예산도 없는 상황으로 통일부의 남북교류기금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남북교류기금(통일부)은 기금사용기관으로 지정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음. 이 기금은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협회도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분회 위원:
 - 위원장이 필요성을 제기한 대북교류 관련 절차와 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주기로 함.
 - 또한 사업예산확보에 있어서, 남북지원기금 등에 대해 적극적인 기금확보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2) 기타

-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국도서관대회의 한 세션(예: 북한특집 등)을 맡아서 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함.
-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온라인 상에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위원회의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성을 갖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고 실행해야함.
-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장단에 제안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에 의견을 모음.
- 2008년 2월 중에 제 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독서문화위원회 2008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8년 1월 11일(금) 14:00~16:5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황금숙(위원장), 박현주, 김수경, 박순혜, 서계녀, 이권우, 최지혜(이상 위원), 신재은, 최정화(이상 사무국)
불참자 : 김정근(이상 위원)
- 회의안건 : 1) "도서관대학 : 독서치료" 운영
 - 2)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기획
 - 3) "청소년도서관캠프 - 시범사업" 개최
 - 4)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워크숍 참가
 - 5) 기타
- 회의내용
 - 1) '도서관대학 : 독서치료' 운영
 - 사업소개
 - 지역주민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2006년 '독서대학'으로 시작

- 독서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주부, 직장인 등)과 해당 지역사회의 교육 보급을 담당할 수 있는 사서를 대상
- 여러지역에 고른 혜택을 위해, 2006년에는 경기, 대구, 2007년에는 대전, 광주에서 개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되면서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독서대학'이라는 명칭을 '도서관대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
 - '도서관대학'으로 명칭변경했을 때의 문제: 기존의 '독서대학'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음. 도서관 관련 수업을 듣는다고 오해할 수 있음. 연속성을 갖도록 "독서대학"으로 하거나 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독서문화대학"으로 하는 것을 제안. 또한 "독서치료"라는 단어도 학문의 한 분야로 도서관계와 사서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고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음.
- '독서대학'의 시기
 - 기존에는 9월, 10월에 시작하였으나 그 시기에 도서관계에 큰 행사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시기를 변경하기로 함.
 - 4월에는 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 등이 있으므로 4월 정도에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 구체적인 날짜는 운영하는 지역도서관에서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함.(단, 4월 중 시작)
- '독서대학'의 개최지역
 - 기존에 개최했던 지역인 경기, 대구, 대전, 광주를 제외하고 독서교육의 혜택이 비교적 취약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최지를 선정하기로 함.
 -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강원지역에서는 지역내 교통편과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경상남도에서는 높은 교육열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진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 '독서대학'의 강좌 및 대상자
 - 일반인 강좌 : 노숙자나 재소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여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내년정도면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 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 지금까지 일반인반은 잘 운영되었으나 사서반은 그러지 못함. 근무시간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임. "독서대학"의 운영에 앞서 관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강좌를 수강한 사서가 각자의 도서관에 돌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서반도 잘 운영될 것임. 강원지역이나 경남지역의 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이때 협회측에서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 2)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기획
 -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주제, 표어를 공모하고 포스터, 표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음. 올해에는 도서관주간을 확대해 보고자 협회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기로 함.
 - 장애인 문제,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청년실업 등 소외계층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만큼 '도서관에서 관용을 배우다.'라는 큰 주제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도서관주간 행사 내용이 우수한 도서관을 표창했으면 좋겠음.(전국도서관대회 참가등록금 면제, 상품 전달 등)
- 3) '청소년도서관캠프 - 시범사업' 개최
 -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교육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하여 '청소년도서관캠프-시범사업'을 여름방학 기간에 1회 개최할 예정임.
 - 도서관캠프는 협회에서는 처음이나,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차별화가 요구됨.
 - 각종 도서관 캠프에 대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 : 강릉 평생교육정보관,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도서관활동 프로그램, 인표도서관의 지역분관 학생캠프 개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도서관 봉사활동, KT&G의 방과후 도서관

- 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등
- 차별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독서교육과 함께 '도서관캠프 지도자 양성'과 '캠프 프로그램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현재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봄.
- 전국단위로 개최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되, 캠프 참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 도서관으로 확산되고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거나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캠프를 여는 것도 의미있다고 봄.
-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캠프에 참여시켜 현장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실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함.
- 협회에 TF를 구성하여 현재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관련자와 워크숍 개최 및 모델 개발을 제안함. 일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4)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워크숍 참가
 - 도서관주간 사업과 청소년도서관캠프 사업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갖기로 함.
- 5) 기타
 - 2008년도 한해 동안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힘쓴 도서관인이나 관계자들을 찾아서 한국도서관상에 추천하기로 함.
 - 그동안 발간된 『상황별 독서목록』을 모아서 『체험적 독서치료』를 발간하였음.

재정사업위원회 2008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8년 1월 15일(화) 14:00~15:30
- 장소 : 우리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남영준(위원장), 정재영, 정정식, 조정근, 황옥경(이상 위원), 이용훈, 심효정(이상 사무국)
- 불참자 : 강선주(위원)

소식 N·E·W·S

- 회의안건 : 1) 협회 재정안정 대책 및 사업개발
2) 기타

- 회의내용 :

- 1) 협회 재정안정 대책 및 사업개발

- 문제집 발간에 관한 검토
 - 우리분야에서도 문제집 발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음.(남영준 위원장)
 - 국회도서관 등의 취업시험, 승진 시험 관련 문제집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정정식 위원)
 - 실무사서들의 시험 출제나 문제은행 관련 서비스 등도 가능(남영준 위원장)
 - 문제집의 문제 출제 시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할텐데 특히 난이도 문제 등의 조절 등에 대한 고민 필요(조정근 위원)
 - 한국도서관협회가 편저가 되어 문제집을 발간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음.(남영준 위원장)
 - 협회가 문제집 발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집에 수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임.(조정근 위원)
 - 문제집에 새로운 기술과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조정근 위원)
 - 협회차원에서 문제집을 발간하려면 협회의 권위가 필요함. 반대로 생각하면 협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임.(정재영 위원)
- 문예진흥기금확보 관련 논의
 - 현재는 도서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음. 이에 재정사업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임. 기금 활용 창구를 만든다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임.(남영준 위원장)
- 회원확보 관련 논의
 - 대학도서관의 개인회원확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한 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도서관을 방문해 협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 회원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함.(정재영 위원)
 - 사서들에게 도합의 회원이 되어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주

는 일이 필요함. 회원확보를 위한 방안 개발 필요. 회원들의 참여공간을 늘려주면 좋겠음. 회원들의 관심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도합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의 목적이 꼭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조정근 위원)

-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경우 노조회비를 냄. 각 도서관마다 각 단체에 내야하는 회비의 부담이 큼. 회원과 협회가 유대감이 없는 것이 문제임.(정정식 위원)
- 협회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다 찾아가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음. 이에 지역조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역의 조직을 묶는 조직으로 협회가 공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에 각 지역조직을 법인화 하는 방안, 즉 협회를 총연합회 형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이용훈 사업진흥부장)
- 회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함. 우선 1차적으로 서울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함.(정재영 위원)
- 대학도서관 모임 등에서 협회에 대한 홍보를 하면 좋을 것임.(황옥경 위원)
- 대학도서관은 비사서직이 관장이기 때문에 회원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정재영 위원)
- 전문도서관의 도태이유도 대학도서관과 비슷함.(조정근 위원)

- 회원확보 방안 논의

- 앞에서 논의한 위원들의 회원확보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은 동의하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대학도서관 방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대학도서관 방문시 사서수가 20~30명 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남영준 위원장, 이용훈 사업진흥부장)
- ⇒ 남영준 위원장이 대학도서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재영 위원에게 문건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함.
- 회원과의 만남, 특정사이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겠음.(조정근 위원)

- 전국의 도서관연구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음.(정정식 위원)

이에 대해 현재 협회 산하단체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이용훈 사업진흥부장)

2) 기타

후원금 유치에 대한 노력을 위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함.(이용훈 사업진흥부장)

• 회의결과 :

- 문제집 발간 건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이 필요 : 서울지역의 도서관부터 방문 추진
- 공공도서관 및 각 지역별 연구회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보다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서 회의 개최
- 협회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협회 사무국의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음. 그러면 재정사업위원회에서 협회측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장기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재정사업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사업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는 상시적으로 협회 사무국에 알려주기로 함.

• 회의 후 정정식 위원 제안 사항(1월 16일 전화통화)

- 사서공제회 운영에 관한 제안
: 2월 중순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련한 사서공제회 관련한 회의가 있다고 하니,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면 좋겠음.

출판위원회 2008년도 제1차 회의

※ 본 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안건에 대해 이메일로 의견을 받아, 2008년 1월 21일 협회에 회의결과가 보고되었음.

- 회의 안건 : 『독서와 독서자료(가칭)/ 한운옥 저』의 출판에 관한 일

•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

- 다수의 위원이 출판에 동의하여 출판하기로 함.
- 다만 출판제안 내용과 목차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보급 및 비용회수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기타의견 :

- 현재까지 협회에서 출판한 자료의 목록과 발행부수(판매부수), 협회 명의의 출판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 협회 명의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자와 협회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알고 싶음.(김영민 위원)
- 보급 및 비용회수 전망에 대한 의견 역시 협회 발행 도서들에 대한 통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 부분은 협회에서 판단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대략적으로나마 제공해 주면 좋겠음.(김영석 위원)

협의회소식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이순옥)에서는, 2007년 12월 22일(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6차 정기총회 및 제 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추진방향-학교도서관발전 방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차성중 사무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학교도서관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이덕주 사서교사(송곡여자고등학교)가 각각 발표하였다.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과 감사 등 신임임원을 선출하고 협의회의 회칙을 개정하였다.



회칙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2006년 협의회가 우리협회의 산하단체로 등록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과, 둘째, 조직 및 인원 개편에 대해, 1) 6개 지구를 16개 지역협의회로, 2) 대외협력국, 연수국을 사무국으로 통폐합, 출판부를 출판국으로 승격, 3) 운영위원회 참여자를 운영위원 외에 부회장, 사무 국장, 홍보 국장, 출판국장까지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 신임 임원 명단

- 회장 : 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 감사 : 강형태(용산공업고등학교), 백은희(울산강북교육청)

[사진 및 기사제공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국내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작은도서관 진흥 유공자 표창

국립중앙도서관(관장 : 권경상)은 2007년 12월 28일 (금) 오후 2시에 6층 회의실에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확산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상은 작년에 이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서비스 향상과 문화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한 공공도서관(단체상 포상)에 수여하며, 올해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독서인구의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문화관광부장관표창에서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문화관광부장관표창 30점 등 총33점으로 상향 확대 조정되었다.

▶ 대통령표창(1명) : 김소희(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관장)

▶ 국무총리표창(개인 1, 단체 1)

: 개인 - 고경희(울산남부도서관 지방서기관)

단체 - 부천 시립도서관

▶ 문화관광부장관표창(30명)

- 강영희(알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강춘재(전주시립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구의서(청주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김남림(강릉시립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김달식(주)신세계 이마트 시지점 지점장, 김복순(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봉휘(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사서주사), 김은주(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창현(제주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형구(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과 지방행정주사), 박윤희(목포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서양은(창원시평생학습관 기능8급), 서우정(광주광역시립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신명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안찬수(책읽는사회 만들기운동 사무처장), 안현식(광주광역시 사립문고협의회 사무총장), 윤병훈(서산해미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이부종(푸른샘어린이도서관 관장), 윤병훈(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선옥(천안시중앙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이수희(청담새마을문고 회장), 이인숙(노원구 동마을문고연합회장), 이화은(국립중앙도서관 사서주사보), 전현규(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조상원(강원일보사 차장), 최낙원(새마

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 순천시부 부회장), 최옥란(외동공공 도서관 지방사서주사보), 최유경(국립중앙도서관 사서서기), 한광순(군산시청소년회관 기능8급), 홍근옥(진천들꽃방도서관 관장)

[기사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다나카 요시하로 치요다 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일본 최초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 치요다 도서관의 다나카 요시하로 관장이 2007년 12월 28일(금), 2008년 완공 예정인 국립디지털 도서관을 방문했다. 치요다 도서관은 2007년 11월 국내 IT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곳으로 이날 방문은 전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이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다나카 관장은 27일 노원도서관도 방문하였다.

[기사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7년 12월 31일제]

국회도서관 - 한겨레신문, 상호검색 서비스 시작

국회도서관(관장 : 문용주)과 한겨레신문은 2007년 12월 26일(수) 지식정보상호협력 협정을 맺고 데이터 교류를 시작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겨레신문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학술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검색·활용하고, 국회도서관도 한겨레신문이 제공하는 간행물과 디지털신문, 각종자료를 이용하게 되었다.

[기사출처 :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26일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정보통합웹사이트 '독서인' 오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 민병욱)는 독서관련정보를 모은 독서정보통합웹사이트 '독서인' (www.rdccenter.or.kr)을 최근 개통했다. '독서인'에는 독서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코너를 비롯해 독서활동 프로그램 사례, 출판과 관련된 법규, 외국의 독서관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독자들을 위한 코너도 마련했다. 독후감이나 서평 그리고 독자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적는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꾸몄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사출처 : 서울경제, 2007년 12월 28일제]

청주시, 청주시립 서부도서관 기공식 개최

청주시(시장 : 남상우)는 2007년 12월 21일(금), 북대동 진재공원내 건립 현장에서 지역주민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립 서부도서관의 기공식을 가졌다. 서부도서관은 사업비 64억 8,000만원을 투입, 2,950㎡ 부지에 연면적 2,480㎡(지하 1, 지상 2층)의 규모로 2008년 말 준공 예정이다.

[기사출처 : 청주투데이, 2007년 12월 22일제]

대구, 수성구 고산어린이 도서관개관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 김형렬)은 (주)이마트 시지점 지하 1층에 고산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고 2007년 12월 21일(금), 밝혔다. 고산어린이도서관은 2006년 7월 수성구청과 이마트가 「도서관 설치공간 무상제공 및 공공요금 지원 등에 관한 상호 양해 각서」를 체결, 5개월간의 시설공사와 도서관입절차를 거쳐 문을 열었다. 고산어린이도서관은 317㎡ 면적에 도서실, 열람실, 유아 및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 모두 1만 2천여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이마트의 영업시간 중인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기사출처 : 대구신문, 2007년 12월 22일자

전남교육청, 10년간 매년 60권 독파운동

전남교육청(교육감 : 김정환)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중 10년간 60권 책읽기 운동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좋은 책읽기 운동을 새해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월 3일(목) 밝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5억원을 들여 전남지역 전체 716개교 중 238개교의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 전산화 작업과 함께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기로했으며,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반드시 도서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장서구비가 빈약한 학교 195곳에 대해서는 장서구비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08년 1월 3일자

창원시립도서관, 이원수 선생 홈페이지 개설

경남 창원시립도서관(관장 : 장해수)은 아동문학의 거목인 이원수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원수 문학



관(www.leewonsu.co.kr)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월 6일(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이원수 선생의 생애와 작품세계, 생전 모습의 사진, '고향의 봄' 배경지인 창원에 대한 소개, 동료 아동문학가 등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있고, 선생의 시에 붙인 창작동요를 직접 들을 수도 있다. 이원수 문학관은 지난 2003년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고향의 봄 도서관 한쪽에 만들어졌으며, 이곳에는 생전 작품활동 모습의 사진과 유품, 주요 저서 등이 전시돼 있다. 이원수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시 '고향의 봄'과 '겨울나무', '고향바다', 동화 '5월의 노래', '메아리 소년' 등이 있다.

기사출처 : 국제신문, 2008년 1월 7일자

책 읽는 태안군민, 태안군이 함께 해

태안교육청도서관(관장 : 김도연)은 태안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를 지원받아 2007년 12월 중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총 4,200여종(일반도서 1,723권, 아동도서 2,310권, 비도서자료 200여종)을 확충하였다. 태안군은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 및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수행을 위하여 매년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1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였다. 도서관은 그동안 매월(1~11월) 이용자의 희망도서 신청을 접수 받아 신규자료와 함께 수시구입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태안도서관은 도서 61,336권, 비도서 2,310종의 자

료를 보유하고 있으며(2007. 11. 현재), 도서대출권수 무제한제도의 실시로 도서대출 이용권수가 작년대비 64% 증가(105,287권→163,926권)하였다.

기사출처: 태안신문, 2007년 12월 27일자

사서와 함께 하는 독서여행

서울 12개 공공도서관과 진해기적의도서관은 1월 3일(목)부터 2월 28일(목)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90분씩 4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독서자료를 읽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개 도서관에서 어린이팀 12개, 청소년팀 5개 등 모두 17개의 모듬을 꾸리며, 한 모듬은 10명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5개 모듬(50명)이 만들어진다. 참가비 무료. 강남, 강동, 강서, 개포, 고척, 남산, 도봉, 동대문, 동작, 송파, 용산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진해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6911-0120

기사출처: 한겨레신문, 2007년 1월 7일자

서울 강남구청 로비 '열린도서관'으로 변신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사내 1층 로비에 '열린도서관'을 설치, 1월 2일(수) 개관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열린도서관에는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따른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에서 교양·전문서적까지 다양한 장르의 도서 2만여권이 비치됐다. 또 로비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34만권이 넘는 전자책을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서와 전문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정의 서재같은 미니 열람실도 갖추고 있다. 열린도서관은 매주 월~금요일

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1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2008년 1월 2일자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연구회지 창간호 발간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회장: 한복희)에서는 2007년 12월 18일(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 한 해의 협의회 활동을 정리하며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날은 협의회 연구회지의 창간호가 발간됨을 자축하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협의회 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회지의 발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창간호에는 울산공공도서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독서치료 운영사례, 공공도서관발전에 대한 연구 자료, 그 외에 2005년부터 울산매일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사서가 원하는 한 권의 책' 코너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경상남도사서친목회에서 분리되어, 1997년 12월 조직되었으며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협의회는 독서교육, 도서관정보화, 홍보, 평생교육 등 4개의 분과로 조직되어 울산 지역사서의 능력향상

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경상대 도서관, 장서 100만권 달성



경상대 도서관(관장 : 김남향)이 2007년 12월 26일(수) 장서 100만권을 달성했다. 경상대 도서관은 장서 100만권을 소장하기 까지 고 이희석 전 도서관장의 유족 손민호 여사와 최중수 북촌초등학교장의 노력이 컸다고 소개했다. 손민호여사는 1975~6년 경상대 제13대 도서관장을 지낸 고 이희석 교수의 “소장 고서와 경상대 역사자료를 고향인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리”는 유언에 따라 지난 해 3월 고인이 소장한 고서 760권, 고서함 4개, 박사학위복 1벌, 경상대 역사관련 사진자료 등을 기증했다.

최중수 교장은 평소 고서방을 찾아다니며 평생 수집한 고서 848점을 지난해 12월 경상대에 기증하였다. 경상대 도서관은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증정하고 최고장이 기증한 1446년 간행 복재우고(復齋遺稿)를 100만번째 도서로 등록했다.

기사 및 사진출처 : 교수신문, 2008년 1월 1일자

부산대도서관, 심리치료 도서목록 발간

부산대 도서관(관장 : 이희열)은 2007년 12월 25일(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의 목록

을 정리하여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를 발간했다. 목록집은 가정폭력과 이혼, 성폭행,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 우울증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31가지 상황을 상정한 뒤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340권을 초록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부산대 도서관은 이 목록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에 게시했고, 목록집에 수록한 책들은 학내 제2도서관 1층 ‘독서치료자료’ 코너에 비치해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07년 12월 25일자

『정보관리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2007년 12월 28일(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 양병태)이 발행하는 『정보관리연구』가 문헌정보학분야 기관지로는 최초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정보관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보관리연구』는 1963년 창간 이래 통권 165호를 발행하면서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연구 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계의 이론적 연구를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 매체로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실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최희운(KISTI)을 비롯하여 의원으로는 남영준(중앙대학교), 윤희운(대구대학교), 서은경(한성대학교), 이춘실(숙명여자대학교), 장덕현(부산대학교), 장혜란(상명대학교) 등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

성되었고,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심사위원들과 더불어 학술적 전문성과 연구윤리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투고자에게 심사비와 논문 게재비의 면제는 물론 게재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및 논문 투고를 장려하고 있다.

[기사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지식기반팀]

한국점자도서관, 그림책 상영 프로그램 개최



한국점자도서관(관장 : 육근혜)은 2007년 12월 29일(토), 정독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그림책 크게 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점자도서관의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인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림책방'이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한 책거리 잔치로 시각장애아동은 물론 비장애아동과 학부모를 모두 초대해 그림책을 크게 보여주고 눈과 귀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길벗어린이 출판사의 후원과 정독도서관의 장소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그림책방에서 읽어왔던 책을 엮어 녹음도서로 제작,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점자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한국점자도서관 자료관리팀, (02)3426-7411]

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 개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 박정란)는 1월 15일(화),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www.daevon.or.kr)을 개관하였다. 이 인터넷 도서관은 TV 드라마를 비롯해 라디오, 다큐멘터리, 코미디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 관련 대본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지금까지 협회가 수집한 자료 1,167명의 작가가 집필한 2,739편의 작품들을 1년의 정리 작업을 거쳐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요한 대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사출처 : 동아일보, 2008년 1월 7일자]

학교마을도서관 건립지원에 감사

최명희 강릉시장은 2007년 12월 20일(목), 강원일보사를 방문해 학교마을도서관 건립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최시장은 이희중 강원일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난 한해 동안 강릉시가 학교마을도서관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인 공익사업에 강원일보가 앞장서 준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원일보사는 지난 3월 왕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연)과 함께 강릉시의 학교마을도서관 건립 지

원사업을 펼쳐왔다.

[기사출처 : 강원일보, 2007년 12월 21일제]

웅진씽크빅, 도서 7만여권 경기도에 기증

웅진씽크빅(총괄대표 : 최봉수)은 2007년 12월 24일(월),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서 7만여권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아동도서 2만 1천여권, 성인도서 4만 9천여권 등 모두 2억 800만 원 상당으로 종류별로는 소설, 수필, 동화집, 전문도서 등이다. 웅진씽크빅은 학습지 교육서비스와 전집, 단행본 등을 발간, 판매하는 업체로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매년 100만권 이상의 양서를 각급 학교나 복지기관, 도서관 등에 기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기증받은 도서를 소외 낙후지역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07년 12월 24일제]

인터파크, 마을도서관 사업 후원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대표 : 최대봉)가 마을도서관 사업을 후원한다. 인터파크도서는 2007년 12월 28일(금) 느티나무도서관재단과 파트너십협약을 맺고 재정적인 지원과 도서관 평가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이 선정한 마을도서관에 사서 1명의 인건비와 연

간 1,000여권의 책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등을 선정해 12월부터 후원을 시작하고 있으며, 점차 후원 도서관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인터파크는 밝혔다.

[기사 및 사진출처 : 서울경제, 2007년 12월 28일제]

서울문화재단,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시상식 및 평가 세미나 열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안호상)은 2007년 12월 21일(금), 독서캠페인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사업을 평가하고 우수 참가자를 시상하였다.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사업은

도서관별로 책 한권을 선정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도서관을 문화커뮤니티 센터로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사업은 서울시 57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사업이 대폭 확장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우수 도서관 및 우수 참여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상하였다.

우수도서관의 선정은 한해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참여 도서관의 활동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진행했으며, 각 도서관에서 추천한 우수가족 사례를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강남도서관, 동작도서관

등 6개 도서관과 참여가족 여섯팀이 우수가족으로 선정되었다.

◎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우수도서관

도서관명	도서관장명	구분
강남도서관	임운철	시립
동작도서관	김지성	시립
시립어린이도서관	정숙동	시립
서대문구립이진야기념도서관	이정수	구립
아리랑정보도서관	민원순	구립
강북문화정보센터	오중섭	구립

◎ '한 도서관 한 책임기' 우수참여가족 : 책으로 만난 행복한

우리 가족

참여가족명	도서관명	구분
강기호 가족	고척도서관	시립
노일실 가족	시립어린이도서관	시립
박은자 가족	용산도서관	시립
이범주 가족	노원정보도서관	구립
마향희 가족	성북정보도서관	구립
박서광 가족	강서구립길꽃도서관	구립

기사 및 사진출처 :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항남구 회원, 교육부총리상 수상



우리협회 평생회원인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기술사업화센터 항남구 과장이 '산학협력 업무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항남구 과장은 포스텍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였으며 대학 최초로 발명자, 특허사무소 및 대학 특허 부서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기술이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포스텍 기술사업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체가 직접 포스텍의 보유기술에 접근,

기술이전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산학협력사업 마케팅을 촉진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산학협력업무 유공자는 전국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원 가운데 산학협력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이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 앙양과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기사 및 사진제공 : 포항공과대학교 홍보팀, (054) 279-2412, 2414

용인느티나무 도서관, 제8회 일민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일민문화재단과 동아일보사는 2007년도 제 8회 일민문화상 수상자로 경기 용인느티나무

도서관(관장 : 박영숙)을 선정했다. 일민문화상 심사위원회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입시공부공간으로 변질된 도서관, 책임기를 강요하는 도서관을 벗어나 어울려 배우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뤄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했다. 박영숙 관장은 1999년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2003년 느티나무 문화재단을 설립, 2004년 문화관광부 '독서문화상 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설립기획단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2006)』, 『작은도서관운영사례-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2006)』 등이 있다.

일민문화상은 우리나라 언론 창달과 교육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에 헌신한 일민 김상민 선생의 유지를 기려 1995년 제정한 일민예술상의 바뀐 이름이다.

상금은 5,000만원이며, 시상식은 2008년 1월 18일 (금)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다.

[기사 및 사진 출처: 동아일보, 2007년 12월 26일자, 2008년 1월 19일자]

울진원자력본부, 울진공공도서관에 도서 5,241권 기증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박현택)는 2007년 12월 26일 (수), 울진공공도서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도서 5,241권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도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식습득 및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원자력본부가 구입, 전달한 것이다. 지난 6월 3,515권을 기증한 바 있어 2007년 한해에만 총 8,756권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사 출처: 세계일보, 2008년 1월 2일자]

2008년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8년 1월 31일(목) ~ 2월 1일(금)
- 장소 : 대전 유성 계룡 스파텔
- 정기총회 안건 : 2007년 결산보고,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
- 기타 : 신년하례식, 과정협 시상 및 저녁식사, 기관소개 등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stima.or.kr>
- 문의 : 사무국 총무 이희원, 전화 042-869-4496, 팩스 042-869-4475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총회, 2008년 5월 서울 개최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의 제28차 총회가 2008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매 4년마다 열리는 IPA 총회는 출판관계자들과 정부기관 종사자, 그리고 개별 출판사의 직



원, 각국 출판협회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책의 길 공존의 길(Diversity in a shared future)”이라는 표어가 내걸린 2008IPA서

울총회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기사 출처: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홈페이지,

<http://www.ipa2008seoul.org/>]

국외소식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신임 사무총장과 정책자문위원 임명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이하 IFLA)에서는 슈튜어트 해밀튼(Stuart Hamilton) 씨를 새로운 선임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해밀튼 씨는 2008

년 1월부터 헤이그의 IFLA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며, 그의 임기는 앞으로 3년간이다. 또한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피터 로(Peter J. Lor)박사의 후임으로 제니퍼 니콜슨(Jennifer Nicholson) 씨(사진)를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니콜슨씨는 2008년 6월 1일부터 헤이그의 IFLA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로 박사로부터 업무 인수 인계를 받게 되며, 정식근무는 2008년

9월 6일부터하게 된다. 니콜슨씨는 199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호주도서관협회에서 근무하면서 IFLA 활동에 적극참여해 왔다.

[기사 및 사진출처 : <http://www.ifla.org/press/IFLAsg08.htm>]

미국의회도서관과 MS, 이용자를 위한 쌍방향 정보이용 지원 협약체결



[출처 : <http://www.loc.gov/exhibits/earlyamericas>]

미국의회도서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용자에게 쌍방향 방식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의회도서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금, 소프트웨어, 기술력 등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들에게 쌍방향 키오스크 방식으로 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유물과 장서들을 전자적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 시작된 “Exploring the Early Americas” 전시회의 홈페이지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기사출처 : 미국의회도서관, 2008년 1월 10일자, <http://www.loc.gov/today/pr/2008/08-009.html>]

미국도서관협회, Mid-winter 회의 개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에서 매년 1월 개최되는 Mid-winter 회의가 1월 11



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13,000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가하였으며, 2,200여개의 토론그

룹, 위원회 회의와 행사 등이 개최되었으며, 800여 개의 전시부스도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도서관의 기금확보, 공익 등이 중점적인 토론 주제로 다루어 졌다.

[기사출처 : ALA Press Releases, 2008년 1월 16일자,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pressreleases&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172111>]

IFLA, 제 2회 Presidential Meeting 개최

IFLA에서는 독일인인 Claudia Lux 박사의 회장 재임기간(2007~2009) 중, 독일 IFLA 국가위원회, 독일 외무부와 괴테문화원 등의 지원을 받아,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Free Access to Information)”을 주제로 매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컨퍼런스는 2007년 1월 18~19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유럽 26여개 국가, 1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두 번째 컨퍼런스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디지털 디바이드”를 주제로, 2008년 2월 21일(목)~22일(금)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상완 박사(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조현양 박사(우리협회 국제교류위원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치주 박사(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여 관련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신설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개관 : 2007. 12. 27
- 면적 : 1,962.60 m²
- 관장 : 박미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19
- 전화 : 02)991-0871~4
- 팩스 : 02)991-0882
- 홈페이지 : www.wolgyelib.kr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 특징 :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 도서 3만2천여권, 비도서 622점, 잡지 120종, 점자도서 291권의 장서를 갖춘. 지하 1층에는 매점 및 주차장(8대), 1층에는 모자열



람실, 2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 문화교실과 사무실, 3층에는 디지털종합자료실(시각 장애인열람코너포함), 4층은 일반열람실과 문화교실이 있으며 도서관내 전 실 무선인터넷 사용 및 RFID 시스템 활용 정보 도서관, 지역 특성을 고려 장애인과 실버세대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준비중.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과 통합화원제 운영.

* 서울여자대학교 위탁 운영

한국도서관협회 제59차 정기총회



- 일시 : 2008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안건 : 2007년도 정기회계 감사보고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정관개정 등